

# 중국, 전지 수출가격 대대적 인상

## Global Source, 약 10% 올려 ... 유럽·북미 중심에 중동도 공략

세계 최대 전지 생산국으로 부상한 중국 전지 생산기업들이 하반기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.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, 세계적 시장조사기관 Global Source는 중국이 세계 전지생산의 40%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전지공급 국가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.

세계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, 디지털카메라, 캠코더, 전동공구, 자동차의 전자설비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 전지 생산기업들의 수출액이 2009년 10%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또 중국 수출기업의 38%는 원가상승 부담과 주요시장인 미국의 수출부진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6개월 안에 제품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.

Global Source의 보고서를 작성한 마스리(馬思禮) 출판인은 중국기업들의 가격 인상폭이 10% 이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.

중국 전지 생산기업들은 유럽과 북미를 주요 수출시장으로 꼽았지만 17%는 앞으로 중동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5>